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일일이 따지다 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즈음 장마가 들어서 또 비가 오면 어쩌나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깐 비가 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덕분으로 이렇게 비는 안 맞게 되나 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스님께서는 왜 용(用)만 가르칩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발전을 하든 발전을 안 하든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세상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움죽거리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그것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모두가 발전이요, 보고 듣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발전이요, 모두가 용이 아니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목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움죽거림이 없이 움죽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게 있죠, 고정됨이 없다는 거.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인데 그 가운데 움죽거림이 없다, 고정됨이 없어서.' 이랬죠. 여러분은 지금 한시도,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움죽거립니다. 눈을 깜박거리십니다. 눈 하나 깜박거리는 것도 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 있지 않다면 눈도 깜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는 자체가 그대로 용입니다. 그래서 용신(龍神)은 모습이 용으로 생겨서 용신이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리고 찰나에 바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따지려고 든다면 이 공부는 천하없어도 못 합니다. 모두 우주와 더불어 인간의 근본 이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니 되는 까닭에 생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또. 근본은 불성이라고도 하죠. 불성의 에너지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혼자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와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도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거와 같아서….



그림 · 최주현

왜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죠. 전력 하나를 가지고 수만 개로 화해서 나투면서 돌아간다. 진화되고 바뀌고 말입니다. 또는 그 불성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공기력으로 수많은 것을 발전해 낸다 이겁니다. 비도 눈도 바람도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다 발전을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떠한 걸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따지다 보면 하나도 건질 게 없다. 그런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는 천수경이나 뭐, 또 다른 경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내기 이전에 낸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한마음에서 일일이 생활이 나오는 거를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어떻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어떻고 형제 노릇 할 때는 어떻고, 요걸 일일이 따진다면 이 마음 법은 언제 배웁니까? 한마음에서 모두가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돼서 부처라고 내놓은 것이 마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듣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응신이 돼서 나투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수없이 진화되는 그 나툼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묘한가. 여러분이 연기법 연기법 하지만 진짜로 실천을 해 보지 못한 분들은 연기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관여해서 실천해 보지 못한다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즉 말하자면 콩 싹이 콩씨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 싹은 머지않아서 싹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콩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씨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콩씨라고 했다고 해서 또 콩씨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 종자를 말하는 것이니깐요. 그것을 콩씨로 비교한 건데 콩씨 하나 가지고 이 세상만사를 다,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콩씨 하나가 되남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틀립니까? 심어서 먹이고, 다 먹고 나면 또 심어서 또 먹이고 영원토록 그 콩씨는 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불성의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지 늘고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성의 에너지는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만, 즉 말하자면 하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전체가 생명입니다. 바람도 생명이요 비도 생명이요 물도 생명이요 눈도 생명이요, 이 공기력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나오며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생명들을 살리며, 어디로부터 광대하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뀌지면서 찬란하게 꿈을 키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보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나는 빌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백팔배 해야만 되고, 삼천배 해야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아지는 겁니다. 다 막아지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 놓고 자기가 뛰려고 그러면 뛰어집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알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라. 인간이 그런 도리를 모른다면 하(下)의 동물하고 고등 동물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차적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움죽거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빛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네 집이 비어서 주인이 없다면, 이 마음이 부처인데 내 심안에 진짜 주처를 두지 않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집이 (가슴을 짚으시며) 빈 거라고 말입니다. 집이 빈 거와 같은데 만약에 댁이 사는 집들을 싹 비워 놓아 보세요.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치우지도 않고 건사하지도 않아서 그냥 거미줄도 슬고 벌레도 생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